

김무성 “상중인데도 나왔다” 윤장현 “숙원사업 도와 달라”

새누리-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호남지역 광역단체장들과 만나 내년 호남권 핵심사업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이 야당 소속인 광주시장과 전남·전북 도지사와 마주 앉아서 예산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로, 내년 4월 총선 때 야권의 심장 부인 호남에서 여당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한 이른바 ‘사전정책’을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전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사실상 당 전체가 상중(喪中)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예정대로 예산간담회를 진행해 호남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과시했다.

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서라도 호남권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과 광주·전남·전북도지사 함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한다”며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중임에도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은 지역 내 주요사업을 일일이 소개하며 여당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 이자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車100만대 생산기지 대통령 공약”

세계수영선수권도 예산지원 촉구

이정현 “輿, 호남예산 각별한 관심”

조성기지 및 클러스트 조성사업 ▲2019년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 스테이션 실증사업 등에 대한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윤 시장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은 청년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주의 미래가 달려 있는 핵심사업이고, 대통령 공약”이라며 “광주시민들의 숙원이 담겨있는 만큼 꼭 도와달라”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지방자치단체 힘만으로 개최하기 어렵다”라며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윤 시장이 노사협력과 사회적 대타협 등을 위해 노력한 점 고맙다”라며 “자동차도 친환경 고부가가치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새누리당 소속인) 이정현 최고위원이 ‘예산폭탄’이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폭탄이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진정으로 피폭되고 싶다”며 농담 섞인 말투로 이 최고위원의 공약 이행과 호남지역에 대한 여당의 관심을 요구했다.

이 전남도지사는 ▲해안철도 목포~보성 건설사업 ▲광양항 24열 컨테이너크레인 설치 지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광주시장·전남도지사·전북도지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성민·박명재 예결위원장, 김재경 예결위원장, 이정현 최고위원, 이낙연 전남지사,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송하진 전북지사, 김성태 예결위 간사, 윤장현 광주시장, 주영순 정책위의부장. <전남도 제공>

동서통합시대 조성 선도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송 전북지사는 ▲지역권 산림치유원 조성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 등 관련 활성화 사업 추진 ▲세만

금 내부간선 도로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했다.

이에 여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이정현 최고위원(전남 순천시·곡성군)은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위원장, 간사, 소위 위원들이 함께 모

여 새누리당 의원이 거의 없는 호남지역의 단체장들만 모시고 이야기를 직접 듣는 기회가 적었다”며 현재 새누리당이 호남지역 예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비교

구분	경량전철(저심도)	노면전차(트램)	모노레일
개요	·도로를 굴착(7~10m)하여 축조된 지하공간을 경량차량이 운행	·도로중앙 노면에 2~4개 차로를 이용하여 경량전차기 운행	·콘크리트 또는 철구조물(교 또는 지하)의 궤도 위에 단순빔을 따라 주행
특징	·3,000~20,000인/h의 중소규모 수요에 적합	·3,000~10,000인/h의 중소규모 수요에 적합	·3,000~20,000인/h의 중소규모 수요에 적합
표정속도	·30~40km/hr	·15~25km/hr	·25~35km/hr
장점	·지하 전용선로 이용으로 도로 교통과 간섭 없음 ·이용객 접근성이 좋고, 타 교통수단과 연계수송체계 구축에 유리 ·피난거리가 짧아 화재 등 방재에 유리 ·무인 자동화시스템 적용 가능	·가장 경제적인 경량전철 시스템 ·모든 동선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용객 접근성이 가장 양호함 ·열차 확장성에 가장 유리함 ·가장 친환경적이고 건설기간 없음	·고가기둥의 용지 점유면적이 적음 ·단순빔으로 타 시스템에 비해 토목구조물 설치비가 저렴하고 조망이 좋음 ·무인 자동화시스템 적용 가능 ·선로 이탈 위험성이 낮음
단점	·별도의 지하 지장물 처리대책 필요 ·도로굴착으로 공사중 교통혼잡 우려 ·도로선형 및 지형변화에 따른 급곡선, 급구배 형성	·교차로 등에서 사고위험 상존 ·도로점용 과다(2차로~3차로)로 노면교통 정체 유발 및 무인운전 운행 불가 ·가선(전차선) 설치시 도시미관 저해 ·기상변화(강설 및 강우)의 영향을 많이 받음	·궤도의 안전통로 및 차량의 탈출설비 필요 ·주행률이 많고 복잡한 곡선주행에 다소 불리 ·궤도빔의 폭이 작아 별도 승객대피설비 필요
건설비(km당)	·약 500~600억원	·약 250~300억원	·약 430~480억원
국내외사례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건설·운영중에 있음	·대전, 수원 및 서울에서 도입 추진중 ·유럽 다수 지역에 적용	·일본 등 14개국 48개 노선 운행중

돌고 돌아 원점으로 되돌아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모노레일·트램 방식 대안 부상 지하·노면·고가 혼합안도 검토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중대 기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두 차례나 바뀌었던 건설방식이 또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건설방식도 변경되는 셈이다.

민선 5기 박광대 시장 시절에는 사업비가 저렴한 지상고가(地上高架)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민선 6기 강은태 시장 재임기간에는 저심도 방식으로 바뀌었다. 고가방식이 도심 미관을 해치고 노선 인근 지역의 일조권 침해 발생 등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민선 7기 윤장현 시장이 취임하면서 또다시 도시철도 2호선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건설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붙는 등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결국 사업은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사업비가 예산(2조71억원)보다 4300억원이 늘어나면서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시는 사실상 2호선 건설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저심도가 아닌 지상건립으로 건설방식을 변경하거나, 기존 저심도 공법을 적용하되 지상구간을 확장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 안팎에서는 건설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건설기간이 짧은 모노레일이나 트램(노면전차)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이는 2호선 착공이 늦어지더라도 완공시기는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모노레일의 경우 최근 대구시가 도입한 도시철도 3호선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 대상이 되고 있고, 트램은 대전시가 2호선을 도입 추진중에 있어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두 공법도 단점은 있다. 모노레일은 궤도빔의 폭이 좁아 피난로 확보가 어렵고, 별도의 승객대피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지하건설방식에 비해 일조권 및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단점 등이 있다. 트램은 유럽 등지에서 보편화된 방식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관계법령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기존 도로 폭을 넓혀야한다는 점에서 공사비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광주시는 또 지하와 노면 그리고 고가 구간이 혼합한 혼합구상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이 지하와 고가를 오가는 환환이 가능하면 이 방법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 건설에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전체 41.9km 구간 가운데 지상에 올리기로 한 구간(4.2km)을 추가로 8km를 더 늘리는 방안이다.

내일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 기본설계 경제성(EV) 검토 용역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간호사 일자리 찾기, 대한간호협회가 함께합니다

1522-1755
www.RNjob.or.kr

내일을 위한 행복한 일자리

간호취업지원센터에서 찾아드립니다!

대한간호협회는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선결과제인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합니다.

- **취업기관**
포괄간호서비스 시행병원 및 예정 병원을 포함한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교육**
유휴간호사 대상 재취업교육(수시)
신규·이직간호사 대상 교육(수시)
간호관리자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수시)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대상 진로프로그램 진행(수시)
- **상담**
간호사 대상 재취업상담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대상 진로상담
- **권역센터별 연락처**
서울 02)2268-2631~3
부산·울산·경남 051)442-3824~5
대구·경북 053)756-8487
인천·경기 032)441-2926
광주·전북·전남·제주 062)222-5025
대전·강원·충북·충남 042)825-0749

보건복지부 위탁 www.RNjob.or.kr
간호취업지원센터
대한간호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